

4·15총선 민주당 경선 격전지 분석

‘호남정치 1번지’ 2파전



김혜경(57)



이병훈(63)

학력	조선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수료	전남대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박사)
경력	(현)문재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특별위원 (현)남부대 문화복지대학원 경영학과 겸임교수	(전)문재인대통령후보 광주총괄선대본부장 (전)광주시 경제부시장
주요 공약	·파리 광주를 국제관광도시화로 경제 활성화 ·인공지능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확보	·광주형 그린뉴딜 추진 ·소통과 창조 도시 육성 ·물길·바람길을 살리는 생태도시

광주 동남을

김혜경, 금융경제전문가 자처
‘동구 토박이’ 강조 표방같이
이병훈, 조직·지지세 탄탄
광주형일자리 추진 입지 다져

하는 한국제조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문화경제부시장으로서) 광주형일자리 추진했으며, 지난 신고를 겪어내며 기초를 다진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부시장은 ▲광주형 그린뉴딜 추진 ▲소통과 창조 도시 육성 ▲도시재생·골목경제 활성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금융경제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김 겸임교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동구에서 졸업하는 등 45년간 동구에서 거주한 ‘동구 토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표방같이 하고 있다. 김 교수는 광주은행에서 33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여성 최초 지방은행 임원인 부행장까지 역임했고, 일과 병행하며 박사학위를 수료하는 등 ‘자수성가’ 스타일로 꼽힌다. 김 겸임교수는 “금융전문가로서 33년간 지역현장에서 삶을 개척해 왔던 과거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힘차게 출발하고자 한다”면서 “기업에서 체화된 윈윈의 상생 문화처럼 정치도 국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협치, 약자와 소수를 대변하는 상생의 정치 문화를 일구려겠다”고 강조했다.

또 “동구 지역발전을 위한 화두는 무엇보다 도심재생과 경제활성화에 있다. 동남구의 산업구조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육구인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겸임교수는 ▲한국의 파리 광주를 국제관광도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지원으로 사회안전망 확보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대책방안으로 인구유입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온라인 지원센터의 건립 활성화 ▲행복지수 1위 동구 건설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오광록 기자 kroh@

지역발전 내건 울산 대결



김희재(57)



정기명(57)

학력	연세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전남대 법학과 졸업
경력	(현)법무법인 정의와 사랑 대표변호사 (전)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전)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장 (전)여수시 고문 변호사
주요 공약	·이순신 장군 호국관광벨트 조성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지원 ·권역별 거점형 복지시스템 구축	·지역 상가 재세정장 보호 ·농수산업과 관광 연계 활성화 ·도서해안관광 민자 유치활성화

전남 여수시를

김희재, 광주·의정부지검장 지내
정기명, 지역위원장 출신 강점
산업단지 등 눈높이 공약 내세워
학연 따라 표심 갈릴 지 주목

불신과 부정부패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깨끗하고 참신한 정치,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와 경선에서 맞붙는 정기명 예비후보는 여수시 을 지역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당 조직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기명 예비후보는 지난해 3월 중앙당의 여수를 지역위원장 공모과정에서 치열한 경선을 뚫고 위원장에 당선된 뒤 당 조직을 그동안 차분하게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인 정 후보는 사실상 ‘무변론(변호사가 없는 마을)이었던 고향 여수에서 2002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19년째 지역민들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특히 시민들을 위한 350여건의 무료법률 상담 활동을 해오면서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정 후보는 자신이 진정한 ‘여수 토박이’임을 강조하며 김 후보와의 차별화를 두고 있다. 그는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했다”면서 “화정면 개도에서 태어나 학업(대학)과 국방의 의무를 위해 여수를 떠났던 10여년을 제외하고는 40여년을 지역민 곁에서 웃고 울어온 뼈 속까지 여수사람”이라며 여수 토박이를 강조하며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 예비후보의 주요 공약은 ▲‘여수사건특별법’ 제정 ▲환경안전감시기구 포함 산단특별법 제정 ▲여수산단 노동자 건강복지센터 건립 ▲공룡테마 지질공원 건립 등이다. 여수산단이 노후화해 환경오염, 산단 내 대형사고 등이 우려되는 만큼 여수산업단지 관련 공약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 모두 여수 출신이며 변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김희재 예비후보는 초·중학교만 여수에서 다닌 뒤 순천에서 고등학교(순천고)를 다녔고, 정기명 후보는 초·중·고등학교(여수고)까지 여수에서 다닌 만큼 학연에 따라 갈리는 지역표심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최권일·김창화 기자 cki@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지역발전 1조2000억 투자

한전 에너지밸리 투자펀드 등 15건 346억9000만원 포함

광주·전남이 공동조성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17개 공공기관이 올해 광주·전남지역발전 사업비로 1조2000억 원 이상을 배정할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들이 수립한 2020년 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지역산업 육성분야 등 6개 분야에 총 1조2214억원에 이른다.

지역산업 육성분야의 경우 한국전력에서 에너지밸리 투자펀드운용을 포함해 15건 346억90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는 간척지 염지하수활용 아쿠아팜 조성 등 11건 79억80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지역거점기관 운영 및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 등 7건 144억2000만원 등 모두 65개 사업에 650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인재 육성·채용분야에 한국전력 12억원, 한전KPS 9억6000만원 등 4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과 함께 한국전력이 1500명 등 17개 공공기관에서 2281명의 신규 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분야는 97건(34억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촌집 고쳐주기 등을, 한국인턴넷진흥원은 미사용 ICT자산 기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도서지역 독거노인 ICT기반 관리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목표액은 한국전력 391억원 등 총 1조1251억원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난해에 비해 총예산액이 2조7000억원이 줄었음에도 지역발전사업비는 지난해(1조2281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책정했다.

광주와 전남도는 지난 20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개최한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자문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반영·보완해 2월 말까지 발전계획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해양레저 자문위’ 출범

요트·카누 등 전문가·교수 15명

전남도가 도내 풍부한 해양자원으로 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도 해양레저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남도는 23일 “지난 2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요트, 카누, 마린 등 현장전문가, 대학교수 등 15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된 해양레저자문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해양레저자문위는 앞으로 전남도 해양레저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희 전남도위원을 비롯해 목포해양대 이경우 교수, 조선대 김민철 교수, 사군 관련 직원 등이 참석해

위원장은 목포해양대 이경우 교수를 위원장 선임했다.

위원들은 이날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해양레저 기반 구축, 해양레포츠 활성화 등 전남도 주요 해양레저분야 사업을 자문한다 이어 전남 해양레저스포츠 정책 수립, 지역별 대표 대회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이번 자문위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를 바탕으로 수립 중인 해양레저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전남의 해양레저분야 관련 사업은 안도 해양유선터 건립 등 총 22개 사업(사업비 340억원)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행정부시장에 김종효 정책관 임명

광주시는 신임 행정부시장에 김종효(56·사진)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이 24일자로 임명됐다고 23일 밝혔다.

신임 김 부시장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 순천고와 건국대를 나와 지난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광주시 법무담당관과 경제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현안 부서를 거쳐 시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 감사담당

관, 재난대응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 부시장은 24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코로나19대응현장을 찾는 것으로 공식업무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전임 정중재 행정부시장은 행정안전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